

해외 최신 의약뉴스

편집인 남궁형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입원환자 중 적어도 4% 이상에서 아세트아미노펜 과용량 투여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1일 4g이상이 처방되거나 투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키워드

전자의무기록, 아세트아미노펜, 입원환자, 과용량, 의료정보공학

의료기관 내에서 아세트아미노펜 과용량 투여가 흔히 발생 [Nov 13, 2012 Medscape Medical News]

보스톤 하버드의대 브링햄 여성병원의 내과교수이자 파트너 헬스케어 임상정보 연구개발부의 수석연구원인 리 추 박사 연구팀은 3개월 동안 2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14,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의 후향적 검토 연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과용량을 투여받은 성인 입원환자는 적어도 4% 이상이라고 11월 12일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온라인판에서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해열 목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급성 간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나, 총 입원환자 23,750명 중 955명 (4.0%)은 1일 4g이상을 투여 받았으며, 65세 이상의 환자 중 22.3%, 만성 간질환 환자 중 17.6%는 1일 3g이상을 투여 받았다.

입원기간 중 과용량 복용 환자의 일일 평균 투여횟수는 더 많았고 (3.5 vs 1.5; $P < .001$), 투여당 용량도 더 높았다 (791 mg vs 651 mg; $P < .001$). 그리고 과용량 복용 환자 중 45.9%는 1일 5g이상, 약 40% 정도는 적어도 3일 이상, 4%는 10일 이상 투여 받았다. 과용량 투여의 위험성은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는 감소하였으나 (odds ratio [OR], 0.5 [95% confidence interval [CI], 0.4 – 0.7]) 골관절염 환자에서는 증가하였다 (OR, 4.2 [95% CI, 3.6 – 5.0]).

과용량 투여율은 단일제나 복합제 투여환자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위험성은 단일제 투여환자에서 더 높았고 (OR, 3.4 [95% CI, 2.5 – 4.6]), 하나 이상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과용량 복용율이 높았으며 (OR, 1.8 [95% CI, 1.5 – 2.1]), 적어도 3개 이상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를 복용한 환자의 20.7%에서 과용량을 경험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과용량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중복투여 (hazard ratio [HR], 16.6 [95% CI, 13.5 – 20.6]), 복용 약물의 개수 (HR, 2.4 for each additional product [95% CI, 2.0 – 2.9]), 500mg 함유제제의 사용 (HR, 1.9 [95% CI, 1.5 – 2.3]) 이었다. 또한 백인 (HR, 1.5 [95% CI, 1.3 – 1.7]), 골관절염 환자 (HR, 1.4 [95% CI, 1.3 – 1.6]), A 병원 입원환자 (HR, 1.6 [95% CI, 1.4 – 1.8])에서 과용량 투여 위험성이 높았고, 내과환자 (HR, 0.6 [95% CI, 0.5 – 0.7]) 나 필요시 복용환자 (HR, 0.7 [95% CI, 0.6 – 0.9]) 에서는 낮았다. 또한 과용량 투여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ALP [alkaline phosphatase]는 증가했지만, ALT [alanine aminotransferase]는 증가하지 않았고, 다른 임상적 간손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과용량 투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며, 과용량 투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1일 4g이상이 처방되거나 투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를 전자의무기록 내에 설계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이 개발에 전념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과 같은 기술은 환자와 의료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의료정보공학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업무개선, 프로세스 공학, 지식 산업, 분석역량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하며,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의료시스템 지향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시카고의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왈터 에팅거 박사는 말했다.

::원문::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774364>

